

2023 년 6 월 25 일 “여호수아(9) 모든 땅을 점령하다”(수 11:21-23)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주요 거점들을 모두 장악하였습니다. 이 승리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1] 가나안 북방 정복

‘하술 왕 야빈’이 주변 세력들과 규합하여(마돈, 시므론, 악삽, 등) 이스라엘에 대항합니다(11:1). 연합군은 말과 병거를 동원한 수많은 군사를 출격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적군을 몰살시키셨을 때,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태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하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명에 따랐고 전쟁마다 적들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습니다(헤렘).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이 창조의 목적에서 많이 벗어나면 새롭게 판을 짜십니다. 가나안의 경우 헤렘을 통해 심판하시고, 언약백성이 동참하는 새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모든 땅을 정복하였는데(16-19 절), 그것은 하나님이 가나안인들을 고집 부리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 주님께서 그 원주민들이 고집을 부리게 하시고,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싸우다가 망하도록 하셨기 때문이다.’(20 절)

[2] 완고한 민족의 결말

성경에서 완악한 사람의 대표는 이집트 바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를 완악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출 9:12, 10:1, 20, 27...). 그러나 하나님이 억지로 그리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는 애당초 완고한 마음을 가졌고 거듭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나갔습니다. 결국 자신의 완악함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에 대하여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적 측면에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고 표현합니다. 이와 같이 가나안 민족들도 끝까지 고집을 부렸고 결국은 하나님 심판을 받습니다.

이 심판은 언약백성이 동참하는 새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디딤돌이 됩니다.

[3] 유업을 향한 길에서 얻은 변화와 축복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서는 오직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제외하고는 아낙 사람으로서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21-22 절)

(역사 배경)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12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중 10 정탐꾼은 거기서 본 아낙자손을 두려워하며 비관적 보고를 했습니다. 이에 온 백성이 무서워했습니다(민 13-14 장). 이들이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한 결정적 이유가 아낙 자손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 땅을 정복하였을 때, 몇 도시 빼고 아낙인의 세력은 무력해졌습니다. 대적의 결말입니다.

훗날 가드 출신, 거인 골리앗이 등장하지만 유업의 절정을 쟁취한 다윗에게 패합니다(삼상 17). 이것은 유업에 소망을 둔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승리를 주시는지 보여줍니다.

우리 삶에 아낙과 같은 두려움의 대상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약속하신 유업을 바라보며 믿음과 인내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아낙을 무력화시키며 승리를 안겨 줄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불안, 혐오, 분노 따위를 일으키는 것들이 아낙과 같이 두렵게 하지만 약속하신 유업을 향해 굳센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2. 우리 삶에 아낙과 같은 존재가 있습니까? 이것을 이기는 길은 무엇일까요?